

<컴패션 뉴스레터 1970년 1-2월호>

다리를 절던 소년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컴패션은 한국에서 20,000명이 넘는 다양한 어린이를 돌보고 있습니다. 어떤 어린이는 놀라울 정도로 건강하고, 어떤 어린이들은 앞을 볼 수 없거나, 다리를 절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 남서부의 매우 큰 보육원에서 살았던 주종태(Joo Jong Tae)라는 어린 소년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는 아기 때 소아마비로 심각한 장애를 입어 바닥에 앉아 있거나 팔로 몸을 끌며 움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변 아이들은 그가 다리를 절뚝인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라 여겨 잔인하게 놀리고 비웃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컴패션의 간호사 몰리 홀트(Molly Holt)가 이 보육원에 찾아왔습니다. 몰리는 홀트 어린이복지회(Holt Adoption Agency)의 설립자인 해리 홀트(Harry Holt)의 딸입니다. 그녀는 이 한국 땅만큼이나 넓은 마음을 갖고 있으며,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어린이를 받아줍니다.

홀트 양은 종태에게 즉시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녀는 종태의 팔다리와 뼈의 상태를 살펴본 후, 그가 수술을 받고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걷는 법을 배우고 다른 어린이들처럼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녀는 보육원 원장님과 상의한 뒤 종태를 훌륭한 장로교 병원과 컴패션 보육원이 있는 한국 남서부의 광주시로 데려가는 것에 대한 승인을 얻었습니다.

몰리는 종태를 일본산 스테이션왜건에 태우고 46마일(약 74킬로)의 험난한 길을 운전하여 광주에 도착했고, 그곳에서 가나안 과부의 집(Canaan Widows Home)의 원장님을 설득하여 그가 치료를 받는 동안 머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의사가 처음 그를 살펴보았을 때, 그들은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만 조만간 미국에서 정형외과 전문의가 온다고 하면서 의사가 도착할 때까지 종태를 병원에 머물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후 의사가 도착해 종태를 진찰하며 말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잘 볼 수 없는 특이한 뼈의 형태인데, 이 소년을 위해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미국에서 거의 1,000~1,500달러의 비용이 드는 매우 복잡한 수술을 준비했습니다. 이 의사는 수술을 집도했고, 종태는 최상의 치료를 받았습니다. 뼈가 모두 결합하고, 준비된 인공 관절이 그의 체중을 지탱할 수 있을 때까지 그는 움직이지 못하도록 고정되었습니다. 그 후, 종태는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침대에서만, 그다음에는 앉을 수 있게 되었고, 마침내는 바닥에 내려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종태는 오른쪽 다리가 너무 약하고 근육도 너무 없어서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설 수

없었습니다. 홀트 양은 사명감을 갖고 종태를 데리고 그의 작은 다리에 맞는 교정기를 제조하는 회사가 있는 부산으로 데려갔습니다. 후원자와 그 외 다른 사람들이 보내준 후원금으로 종태는 곧 교정기를 맞출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는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종태는 매우 자랑스럽고 행복한 소년이 되었습니다.

종태가 원래 살았던 보육원을 다시 방문했을 때, 어린이들은 땅바닥에서 이리저리 기어다니던 그가 갑자기 두 발로 걸어 들어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들은 컴패션의 간호사들에게 매우 감격했습니다.

종태는 여전히 광주의 가나안 과부의 집(Canaan Widows Home)에 살고 있습니다. 그의 훌륭한 후원자가 생일 선물로 보내준 10달러로 세발자전거를 샀습니다. 그는 자전거 타는 것을 좋아하고, 그것이 그의 다리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는 이제 걸을 수 있으며,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보조기가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잘 사용할 수 있는지 자랑스럽게 보여줍니다.

그의 다리가 자라나면 정기적으로 부산에 가서 보조기를 더 크게 맞춰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다리를 더 많이 사용할수록 두 다리는 더욱 비슷해져 갈 것입니다. 비록 평생 보조기를 착용할 수도 있지만, 적어도 미국 간호사의 사랑으로 인해 그는 행복하고 건강하며 정상적으로 걸을 수 있는 소년이 되어 이제 학교에도 갈 수 있고 다른 소년들과 즐겁게 놀 수 있습니다. 비록 축구를 할 수는 없을지라도, 기형의 팔다리로 인해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저주로 생각되었던 것에서 당당하게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 헨리 L 하비 목사

“사랑은 ...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고린도전서 13:7)

(사진)

몰리 홀트(Molly Holt) 간호사와 주종태 어린이

새로운 직원을 소개합니다.

컴패션은 최근 캘리포니아주 포터빌(Porterville)에 살고 있는 도널드 L. 스미스(Donald J. Smith)를 관리 및 홍보 담당 이사로 임명했습니다.

그는 인디애나주 해먼드(Hammond)에서 태어나 대부분의 청소년기를 일리노이주 이스트 세인트 루이스(East St. Louis)에서 보낸 후, 1947년 캘리포니아주 캠벨에 있는 캠벨 유니언 고등학교(Campbell Union High School)를 졸업했습니다. 1951년, 올리벳 나사렛 대학(Olivet Nazarene

College)에서 철학을 전공한 후 학업을 계속하여 1956년에 나사렛 신학대학원(Nazarene Theological Seminary)을 졸업했습니다.

스미스 이사는 미주리주 딥워터(Deepwater), 캔자스주 애치슨(Atchison), 일리노이주 엘진(Elgin)에서, 그리고 지난 3년 반 동안은 캘리포니아주 포터빌(Porterville)에서 나사렛교회(Church of the Nazarene)를 섬겼습니다. 이 기간 동안 그는 많은 지역 청소년 프로그램을 감독했고, 여러 지역 위원회에서 활동했으며, 가장 최근에는 중부 캘리포니아 지역 자문위원회에서 활동했습니다.

우리는 돈 스미스(Don Smith) 목사님과 그의 아내, 그리고 네 자녀가 컴패션과의 뜻깊은 연합에 참여하게 된 것을 환영합니다.

컴패션 사역이 카리브해로 확장됩니다: 아이티 - 도미니카공화국 - 푸에르토리코 - 자메이카

카리브해 지역의 많은 곳은 가난과 질병, 인구 과잉이 특징입니다. 에버렛 L. 프랭클린(Everett L. Franklin) 컴패션 행정 책임자는 최근의 현지답사 중에 선교사, 정부 관계자, 일반 시민들과 보육 사업에 관해 논의했습니다. 그는 이번 지면을 통해 컴패션의 사역이 장차 카리브해 지역과 라틴 아메리카의 다른 지역으로 확장되어야 한다는 가능성에 대한 몇 가지 사실과 관찰 결과를 여러분과 공유합니다.

● 아이티

아이티는 세계 어느 나라와도 비교할 수 없는 정말 독특한 섬나라입니다. 10,000 제곱마일(미국의 메릴랜드주 크기) 이내의 크기에 500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즉, 제곱마일당 500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셈입니다. 1인당 평균 연 소득은 60달러(한 달에 5달러)입니다. 영양실조는 어디에서나 볼 수 있으며, 이는 모든 종류의 질병을 유발합니다. 어린이들에게 가장 흔한 질병 중 하나는 척추 결핵입니다. 제가 만난 모든 어린이들에게 의료 지원이 필요했습니다.

아이티에 있는 동안, 저는 컴패션이 후원하고 있는 세 기관을 방문했으며, 여기에는 장애 어린이 병원, 소녀 보육원, 소년 보육원이 포함됩니다. 우리는 또한 수도 포르토프랑스(Port-au-Prince)에 있는 매우 큰 장애인 병원과 학교의 어린이들을 지원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사진 참조). 그리고 일부 기독교 사역자들을 후원 기반으로 지원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가난한 어린이들을 위한 신체적, 정신적 지원은 아마도 서반구의 다른 어느 나라보다 아이티에서 더 시급할 것입니다.

서인도 제도의 일부를 이루고 있는 자메이카 섬은 쿠바에서 남쪽으로 약 90마일(약 144킬로) 떨어져 있습니다. 대부분의 자메이카인들은 농장 노동으로 생계를 유지합니다. 25만 명이 넘는 학생들이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으며, 정부는 어린이 복지의 많은 부담을 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섬 전역의 기관을 방문하고 선교사들과 지역 공무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집이 없고 가난한 어린이들을 지원해 달라는 요청이 많았습니다.

컴패션은 이날 기준으로 2개 보육원에 대한 지원을 승인했습니다. 이들 중 하나는 청각 장애 어린이를 위한 보육원으로, 외국인 직원들이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들 역시 청각 장애가 있지만 도움이 필요한 자메이카 어린이들을 돌보려는 마음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3년 간 가난한 아이티 섬에서 선교사로 섬기면서 카리브해 다른 지역의 어린이들에게 신체적, 영적 도움이 시급한 것을 직접 목격한 후,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라."

이번에 카리브해 지역으로의 새로운 진출과 향후 중남미로의 진출에 대한 보고서를 컴패션 후원자 여러분과 나누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많은 새로운 친구들이 컴패션 후원자 가족에 합류하여 어린이와 기독교 사역자를 개인적으로 후원하는 멋진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부탁드립니다.

- 에버렛 L. 프랭클린

(사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 도미니카공화국의 열악한 생활환경
- 아이티에서 병원과 학교를 방문한 프랭클린(Franklin) 목사님
- 아이티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소녀
- 재활 치료를 받은 아이티의 장애를 가진 소녀
- 도미니카공화국의 일하는 고아 소년들
- 도미니카공화국의 고아 소년들을 위한 교회와 학교
- 아이티의 의료 서비스
- 푸에르토리코의 노에미 리베라(Noemi Rivera) 어린이
- 후원자의 사랑스러운 보살핌을 경험한 아이티의 장애를 가진 소녀

하비 목사님이 싱가포르의 ²첸수란 보육원(Chen Su Lan Orphanage)을 방문했습니다.

사람들은 싱가포르를 보육원이 많은 나라로 떠올리지 않으며, 실제로 보육원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부모가 사망하고 어린 자녀가 홀로 남겨지는 일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곳의 한 교회가 (매우 부유한 싱가포르인의 아낌없는 기부를 통해) 도시 외곽에 아름다운 보육원을 세웠습니다. 이 보육원은 약 6~7에이커(약 7,345~8,569평) 크기의 땅에 자리 잡고 있으며, 이 도시의 유명한 사람인 ³첸수란(Chen Su Lan)의 이름을 따서 지어졌습니다.

보육원의 일부 비용은 매년 일정한 현금을 드리는 싱가포르 감리교회가 지원합니다. 싱가포르에서 보육원을 운영하는 것은 실제로 매우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컴패션은 이 사랑스러운 어린 이들을 후원하는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사진에서 볼 수 있듯이, 이곳 어린이들 중 일부는 인도인, 일부는 중국인이며, 일부는 말레이시아 출신으로, 이 말레이시아 출신 어린이들은 싱가포르 바로 맞은편 본토의 원주민들입니다. 이곳 원장님과 그녀의 비서 모두 중국인입니다. 둘 다 영어를 구사하며 원장님은 최고 수준의 훈련과 교육을 받은 여성입니다. 이 보육원은 어린이들이 장차 자립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돕고 있으며, 보육원이 진짜 가정처럼 느껴지도록 모든 일을 처리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훌륭합니다.

건물들은 작은 집들이 모여 있는 시스템으로 지어졌습니다. 6~7명의 어린이들이 12명이 넘지 않는 선에서 어머니 역할을 하는 선생님과 함께 한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모든 집들이 함께 모여 하루에 적어도 한 끼, 때로는 두 끼의 식사를 한다는 점을 제외하면, 각각은 실제 가정집과 매우 흡사합니다. 이 특별한 집에 사는 어린이들은 진한 형제애와 자매애를 나누고 있습니다. 사진 속 어린이들의 얼굴을 보면 그들이 정말 행복하고 건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보육원에서 지내는 어린이들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와 체격이 동양에서 만나 본 어린이들 중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에서 보는 것처럼 활기가 넘치는 어린이들의 모습을 보고 정말 기뻐했습니다. 동양의 수많은 보육원에서 어린이들이 체력이 좋지 못해 장난칠 기력조차 거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이곳 첸수란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린이들은 고기도 자주 먹으며, 주변 시골에 비해 오히려 더 좋은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육원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마치 왕실 방문객처럼 대접받았습니다. 인스턴트 커피와 차, 비스킷과 쿠키를 대접받았고, 이 보육원이 동양의 어떤 보육원보다 더 풍요롭다는 것을 보여주는 많은 것들을 받았습니다. 또한 컴패션의 지원이 학교에 다니는 어린이들을 위한 책과 옷을

²첸수란 보육원(Chen Su Lan Orphanage): 싱가포르에서 현재까지 첸수란 감리교 어린이 보육원(Chen Su Lan Methodist Children's Home)이라는 이름으로 운영되고 있음(<https://www.cslmch.org.sg/>).

³첸수란(Chen Su Lan) 박사: 싱가포르 의사이자 의과대학을 졸업한 최초의 현지인 중 한 명 (https://en.wikipedia.org/wiki/Chen_Su_Lan).

구입하는 데 사용되어, 학교의 다른 어린이들과도 잘 어울리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첸수란은 큰 규모의 보육원이 아니며, 어린이는 고작 30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방문하기에 정말 훌륭한 곳입니다. 만약 싱가포르에 가신다면 첸수란 보육원을 찾아가 보시고, 그곳에서 싱가포르 어린이들을 위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직접 확인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사진)

- 남자 어린이들과 함께 한 하비(Harvey) 목사님
- 림첸기옥(Miss Lim Chen Kiok) 원장님과 그녀의 비서와 함께한 하비 목사님
- 행복한 모습의 어린이들

(사진)

1969년 비전트립팀을 환영하는 한국 어린이들 (뒷면 참조)

4차 비전트립을 안내합니다: 1970년 4월 7일~28일

한국과 일본을 방문하세요!

컴패션은 컴패션 후원자와 그 가족들이 후원하는 한국의 어린이들을 방문하고, 현장에서 직접 그 사역을 볼 수 있는 네 번째 기회를 제공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여행에 동참하여 목적 있는 여행을 떠나 보세요. 기독교인들과 교제를 나누고 아름다운 한국의 봄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본에서도 흥미진진한 시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엑스포 '70을 방문하세요. 오사카 외곽의 센티 힐스(Senti Hills)에 있는 박람회장은 환상적인 모양과 색상, 소리로 가득 찬 진정한 만화경이 될 것이며, 테마 건물, 독특한 정자, 매력적인 전시물과 볼거리, 엔터테인먼트 구역, 연못과 평화로운 공원이 여러분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러나 엑스포 '70은 일본 여행의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진주 잠수부부터 일본의 신사 및 불교 사원이 있는 도시와 시골을 구경해 보세요.

이번 비전트립에는 3일간의 일본 엑스포 관람과 10일간의 일본 관광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여러분의 후원어린이를 만나기 위해서 한국에서 7일간 머물니다.

비용은 약 1,000달러입니다. 관심이 있으시면, 아래 양식을 작성하여 정보를 요청해 주세요.

로버트 포사이스 비전트립 팀장
4차 비전트립
Box 880, Blenheim, Ontario, Canada

저는 제4차 컴패션 비전트립 관련 정보를 받아 보고 싶습니다.

이름: _____

거리: _____

도시: _____ 주: _____ 우편번호: _____